

삼성전자 4Q22 경영실적 컨퍼런스콜 Note
[미래에셋증권 반도체 김영건]

* 4Q22 5-Points

0. (감산연금) 없었음. 동시에 '인위적인 감산' 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음.
1. 증장기 수요 대응 위한 인프라/클린룸 투자 지속. Capex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라인운영 최적화 위해 유지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진행 중. Capex 내에서 R&D 항목의 비중이 이전 대비 증가 예정
- ※ 이와 관련해 단기 구간 의미 있는 Bit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언급 했는데 문맥상은 (라인 재배치 등으로) Bit 출하가 적다는 의미로 여겨지나 추가적인 확인 필요
2. (Contents growth) 스마트폰 가격 탄력성 有 DRAM +10%, NAND +10% 후반. 서버 가격 탄력성 少 단, 신규 CPU의 Core 수 증가로 인해 DRAM, NAND 공히 +20% 수준
3. 모바일 하반기 수요 회복 가능성 존재
4. 3nm 2세대 GAA 24년 하반기 양산 계획 유지. 다수 모바일 및 HPC 고객 관심 표명. 1세대 수율은 안정적.
5. ChatGPT 등 자연어 처리 모델의 메모리 수요 촉진 의미. HBM 및 128GB 이상 Server DRAM

[IR head overview]

◇ 분기배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
조기환원 재원 없음

◇ 4Q22 전사실적 Overview

전사 매출액: 70.5조원 기록
메모리 어려운 시장 여건으로 매출 감소했으나
파운드리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
판관비: 판촉비 감소 효과로 감소, 분기 최대 연구개발비
전사 영업이익: 메모리 큰 폭 감소, MX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로 둔화

메모리: 상당규모 재고자산평가손, 고객사 재고 조정
지속으로 평가 하락으로 실적 대폭 하락

LSI: 제품판매 부진으로 실적 하락

파운드리: 최대 매출 달성, 전년 대비 이익 증가

DP: 중소형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실적 감소,
하이엔드 중심 판매로 업계 독보적 실적 기록

대형은 연말 성수기 판매 증가 및 재고 정리로 적자폭
완화

MX: 매출과 이익 모두 하락

TV: 프리미엄 중심 판매로 매출 및 이익 모두 증가
생활가전: 재료비 및 물류비 부담 + 시황 악화로 실적
감소

하만: 전장사업 매출 증가

환 영향: 달러 강세 부품 사업 중심 긍정적. 전사
사업에 긍정적 0.5조원 가량 긍정적 영향

자회사 배당 관련 세법 개정으로 연결 재무재표상
법인세 순이익 기록. 향후 본사가 국내외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총당금으로 쌓아온 것을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일시에 해소. 회계적인 처리일 뿐

◇ 시설투자

4Q22 총액 20.2조원
반도체 18.8조원, 디스플레이 0.4조원

메모리: 평택 3, 4기 인프라 및 EUV 등 선단기술
적용 확대, 차세대 연구개발 인프라 중심 투자

파운드리: 평택 선단공정 Capa 증설, 테일러 인프라
투자

SDC: 중소형 플렉서블 Capa 증설, 인프라 투자

23년 시설투자 계획

메모리: 미래수익 및 기술 리더십 지속 위한 중장기
투자 지속. EUV 투자 지속 외에도 23년 하반기
본격화 예상되는 고성능 DDR5 대응을 위한 선단
공정 전환 포함. 장기적으로는 P4, 반도체 전용 R&D
팜, R&D 역량 개발 인프라 등이 포함

파운드리: Shell first 정책하에 선단 공정 대응을 위한
테일러, 평택 생산능력 확충 위주 투자

[사업부별 실적 Review 및 향후 전망]

◇ 메모리

▶ 4Q22 Review

메모리: 대외 환경 불확실성 + 고객사 재고조정으로 수요 약세. 서버 응용 중심 판매 확대로 시장 상회하는 B/G 기록. 판가는 추가 하락. 의미 있는 규모의 재고평가손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하락

DRAM: 선단공정 비중 확대 및 주요 데이터센터 및 서버 OEM 고객사 중심 고용량 수요 적극 대응 B/G 시장 상회

서버: 부품 공급 이슈는 점차 완화 되었으나,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세트빌드 감소와 고객사 재고조정 기조로 수요 성장 제한적

PC/모바일: 경기침체 우려 확대되며 소비심리 위축된 가운데 주요 고객사 재고조정, 세트빌드 축소로 수요 약세

NAND: 수요 약세 가운데 전 응용 고용량 수요 적극 대응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 하였음. B/G 시장 상회

Client SSD: 일부 고객사의 세트빌드 축소와 재고부담 과중되며 메모리 수요 감소

서버 SSD: 탑재량 지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구매 지연 지속되며 수요가 다소 정체 됨.

모바일: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경우 12월 초까지 제로코로나 정책 및 생산 차질 영향으로 수요 부진

▶ 1Q23 전망

메모리: 원가 경쟁력 기반 제품 믹스 운영 속 고용량 수요 대응 추진

DRAM: 모바일向 고용량 LPDDR5x 수요 적극 대응 및 신규 CPU 출시에 따라 서버/PC DDR5 준비 본격화

서버: 경기 불확실성 지속되며 고객사 재고조정 기조 현재까지 유지. 단기 수요 모멘텀 약세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메크로 변수에 따른 수요 개선 여부 지속 확인 필요

모바일/PC: 소비심리 약세로 인해 수요 위축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나, 중국 코로나 회복 상황과 경기 부양의 영향에 대한 관찰 필요

NAND: 서버 SSD 중심 고부가가치 비중 확대 및 모바일/PC 고용량 확판

서버 SSD: 세트빌드 제약으로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수요 전분기 대비 감소 가능성 있음. 다만, 기업 부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추세가 긍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관찰 필요

모바일: 가격 탄력성 기인한 고용량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 약세 이뤄지며 수요 약세 예상

Client SSD: 고용량 제품수요는 꾸준히 증가 예상되나, OEM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지속되며 구매 지연 전망.

▶ 2023 년 전망

역대 최저 수준의 작년 B/G로 인해 업계 전반 재고 수준 증가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조정 단기적 지속 예정. 재고 조정 이후 수요 개선 여부는 추가적 관찰 필요.

서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선 재고조정 당분간 지속될 전망. 다만 AI/ML 등 인프라 투자 기반 펀더멘털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 하반기에는 탑재량 성장과 신규 CPU 출시에 따른 DDR5 수요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모바일: 매크로 이슈로 소비심리 위축 지속. 스마트폰 고용량화 및 하반기 수요 회복 가능성 존재. 인플레이션 경기 추이, 중국 소비 등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

PC: COVID로 판매량 증가 이후 교체주기 도래에 시간 필요로 당분간 수요 감소 예상.

신규 CPU 본격 확대 따른 DDR5 수요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제품 믹스 최적화 통한 서버 및 모바일 고용량 제품 중심 수요 성장세에 적기 대응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라인 최적화 진행, R&D 관련 필수 투자 비중 확대해 리더쉽 유지 예정

◇ 시스템 LSI

4Q22 Review: 업계 재고 조정 따른 주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실적 감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바일 SOC 사업은 22년 역대 최대 매출 달성. 불륜준 대응으로 M/S 확대. 차량용 유럽 OEM 샘플 납품.

1Q23 전망: 수요 부진 및 재고 조정 영향 지속 예상
다만 중저가 모바일 볼륨존 SoC/2억화소 센서 판매 확대 추진.

2023년 전망: 경기 침체 영향 당분간 지속.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과 저가폰 양극화 시장 전망. 2억화소 센서 제품 라인업 구축 및 모바일 볼륨존 SoC 판매 확대

◇ 파운드리

4Q22 Review: 주요 고객사向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 단,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세 진입으로 이익에는 부정적 영향. GAA 3nm 1세대 공정은 안정적 수율로 양산 중. 2세대는 빠르게 개발 중. 다수의 모바일과 HPC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Auto 향 5nm 양산에 이어서 4nm 개발 착수

1Q23 전망: 고객사 재고 조정 지속으로 가동률 및 실적 하락 예상, GAA 2세대 공정 빠른 안정화 및 모바일/HPC 신규 수주 집중

2023년 전망: 3나노 GAA 2세대 수주 확대 및 차세대 2나노 1세대 개발 집중, Auto/IoT 등 응용처 다변화 노력 고성능 컴퓨팅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징 중요성 증대. 신규 사업팀

◇ 디스플레이

▶ 4Q22 Review

중소형: 계절적 성수기 불구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비 시장 수요 감소하였으나, High-end 스마트폰용 OLED 중심 운영을 통해 견조한 실적 달성

대형: TV 연말 성수기에 따른 QD-OLED 패널 판매 확대와 LCD 잔여 재고 소진으로 매출 증가 및 적자폭 완화

▶ 1Q23 전망

중소형: 주요지역 경기 둔화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약세 지속으로 전분기/전년 대비 실적 감소 전망되나, 주요 고객 플래그십 출시에 적극 대응하여 영향 최소화 노력

대형: 초대형 TV 및 대형 모니터용 QD-OLED 신제품 도입을 통한 추가 수요 확보 및 신제품 조기 램프업 추진

▶ 2023년 전망

중소형: 인플레이션 및 통화 긴축 기조 등 높은 수요 불확실성 가운데, 시장내 경쟁도 심화 예상. 기술 차별화 및 원가 경쟁력 우위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High-end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LCD →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

대형: TV/모니터 수요 약세 지속으로 패널 수요 부진 예상되나, 안정화된 수율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 내 판매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 추진

◇ MX/네트워크

▶ 4Q22 Review

MX: 시장, 인플레이션 및 국제 정세 불안정 지속하 스마트폰 수요 부진 지속

당사,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약세로 매출 및 이익 하락. 특히 예상 대비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 영향이 컸으며, 플래그십 제품은 시장 전망 하락폭 대비 선방.

네트워크: 국내 5G망 증설 대응/ 북미 등 해외사업 확대로 매출 증가

▶ 1Q23 전망

MX: 시장, 경기 침체 지속 및 글로벌 공통 불안 요인 상존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쏘 세그에서 수요 감소 전망

당사, S23 신모델 원활한 공급하 극대화된 경쟁력 소구로 프리미엄 중심 매출 및 프리미엄 태블릿/웨어러블 등 Device Eco 판매 확대 자원 운용 효율화 노력 지속 통한 수익성 확보 추진

네트워크: 국내/북미 등 해외사업 기반 강화 및 신규사업 대응 지속

▶ 2023년 전망

MX: 시장, 지정학적 이슈/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하 스마트폰 역성장 및 웨어러블 성장 둔화 전망

당사, 기술 리더십 기반 폴더블 고성장과 S 시리즈 확판 등 플래그십 고객 확대 및 제품 Mix 개선으로 매출 성장 추진하고, 5G 스마트폰 저변 확대 통해 시장 역성장 극복. 대화면 프리미엄 태블릿/웨어러블 경쟁력 강화 통한 판매 확대 가운데, 운영 효율화 지속으로 견조한 수익성 확보 노력

네트워크: 주요 해외사업 확대에 적극 대응하여 매출 성장세 유지 및 5G 핵심칩, vRAN(가상화 기지국) 기술 리더십 지속 강화

◇ VD/가전

▶ 4Q22 Review

TV: 시장, 연말 성수기 영향 전분기비 TV 수요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선진시장 중심 전년비 수요 감소

당사, 성수기 수요 선제적 대응 및 Neo QLED/Lifestyle 등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 확대하며 전분기비 수익성 개선

가전: 시장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

▶ 1Q23 전망

TV: 시장, 비수기 진입 및 글로벌 경기 불황 영향 지속으로 전분기비/전년 동기비 수요 감소 전망

당사, 제품 경쟁력 강화된 '23년형 Neo QLED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수요를 선점하고, 국가별 전략적 프로모션 진행 및 오퍼레이션 최적화와 비용 관리 지속으로 수익성 확보

가전: BESPOKE 인피니트 라인 등 신모델 출시로 프리미엄 판매 확대하고 비용 효율화 및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주력

▶ 2023 전망

TV: 시장, 경기 침체 및 대외환경 불확실성 속 TV 수요 다소 정체 전망되나 QLED/OLED, 초대형 등 프리미엄 수요는 지속 성장 예상

당사, 98" Neo QLED / 다양한 사이즈의 Micro LED / 대형 게이밍 모니터 출시 등 프리미엄 제품 혁신 지속 및 친환경 경영 기조 강화, 다양한 제품 연계 새로운 고객 경험 소구로 리더십 공고화

가전: 스마트싱스 기반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고 BESPOKE 등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및 B2B/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로 매출 성장 추진

[주요 Data point]

◇ 메모리

(4Q22 가이던스)

DRAM 시장 수요 B/G +HS%
삼성전자 B/G 시장 상회
NAND 시장 수요 B/G +MS%
삼성전자 B/G 시장 상회

(4Q22 Actual)

DRAM B/G +HT%, ASP -30% 초반
NAND B/G +LT%, ASP -20% 후반

(1Q23 가이던스)

DRAM 시장 수요 B/G -LS%
삼성전자 B/G 시장 수준
NAND 시장 수요 B/G -MS%
삼성전자 B/G 시장 상회

(23년 가이던스)

제공하지 않음

◇ 디스플레이

4Q22 OLED 매출비중: 90% 중반
OLED 판매량: 한자리수 후반 증가

◇ 모바일

(4Q22)

휴대폰 출하량: 5,800만대
태블릿 출하량: 800만대
Blended ASP: \$240

(1Q23 전망)

휴대폰 출하량: QoQ 증가
태블릿 출하량: QoQ 감소
Blended ASP: QoQ 증가

◇ TV

4Q22 LCD TV 판매량 10% 후반 증가
1Q23 LCD TV 판매량 10% 후반 감소 예상

[주요 질의 응답]

Q1) (메모리) 수요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세트는 약세 예상되나 채용량 증가 유의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응용별 콘텐츠 증가에 대한 전망은?

A1) 스마트폰/PC 위주로는 가격 탄력적 콘텐츠 증가가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음. 특히, 모바일의 경우 탄력성 기반한 고용량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 스펙 경쟁 심화. DRAM +10%, NAND 10% 후반 증가 예상

서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 제한적. 신규 플랫폼 전환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Core 수 증가로 고용량 제품 채용 증가로 DRAM, NAND 공히 채용량 +20% 수준 증가 예상

특히 DDR5 다이 패널티 및 시장 초기 재고 부재의 영향으로 고객의 초기 재고 확보 위한 수요 발생 예상.

Q2) (가전) 운임, 원재료가 인상 등 수익성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수익성은? 수익성 확보 전략은?

A2) 작년말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반등. 운임은 작년 이후 하락세이나 아직 높은 상황.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 예상되나 단언하기 어려움. 원자재 장기공급 계약 등 방안으로 수익성 확보 주력

Q3) (메모리 공급) 시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투자 축소나 지원 계획, 라인 재배치 등을 통한 감산 계획이 있으신지?

A3)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심리 악화되고 기업 재무 건전성 최우선 하며 재고 조정 지속.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음.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클린룸 확보 예상. 결론적으로 Capex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동시에,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유지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진행 중. Capex 내에서 R&D 항목의 비중 이전 대비 증가할 예정

단기 구간 의미 있는 Bit 영향은 불가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실행 속도 높여 진행할 예정.

Q4)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OLED 경쟁 심화로 SDC의 점유율 축소 우려에 대한 회사측의 전략은?

A4) SDC 상당분 매출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OLED의 경쟁심화 인정. 경쟁 업체들도 가동률을 높여 경쟁 심화

그러나, 경쟁 업체들의 생산량은 이미 수요를 넘어왔던 것이 사실. 최근 몇 년간 당사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왔다고 판단.

주요 경쟁요인으로는

스마트폰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 교체주기가 짧은 관계로 시의 적절한 개발과 생산 설비로 경쟁 우위.

UPC, 네로우 베젤 등 개발 조기 출시 노력

Q5)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내에서 엑시노스 채용이 거의 없고 외부 솔루션 사용 예상 되는데, 최근 MX 사업부 내에서 AP 솔루션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진행상황은? 소관부서는? 엑시노스가 플래그십 보다는 볼륨존에 채용되는 것 같은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A5) 솔루션 중에서 적합한 성능의 AP를 채용하고 있음. 철저한 검증 후에 채용 됨. AP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중요도가 높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AP 선행 연구를 담당하는 개발팀 설립. 갤럭시에 최적화된 AP 개발 예정

Q6) (메모리)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데 시안 공장 1년 유예 받았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전략은? 미국 테일러 부지 등에 메모리 생산 계획은?

A6) 중국 안정적 팹 운영까지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다방면 검토 통해 최적의 고객 대응을 한다는 원칙하에 미래 대응 중. 테일러 메모리 생산시설 관련 단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위주 계획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움. 다만, 국내외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

Q7) (파운드리) 3nm GAA 2세대 개발/수주 현황과 테일러 팹 진행 상황은?

A7) 3nm 2세대는 예정대로 24년 양산 예정. 다수의 모바일 HPC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MBCFET의 대한 설명

FinFET 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설계적 유연성을 주는 장점이 있음. 그래서 고객의 관심이 높고, 당사는 세계최초로 3nm 1세대에서 MBCFET 양산 적용

1세대 공정 안정적 수율로 양산하고 있음. 2세대는 1세대와 대비해 면적, 성능 효율이 더욱 개선되었음.

테일러 팹은 계획대로 24년 하반기 4nm 양산 예정

Q8) (메모리)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관련 분야가 메모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A8) 자연어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가 미래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대규모 랭귀지 모델이 상용화 단계에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AI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대량 양산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조합이
필수적. 하드웨어 수요 증가 예상됨

특히, GPU에 데이터를 지원하는 HBM과 CPU향 128GB
이상의 서버 DRAM 수요 증가세 적극 대응 예정

**Q9) (디스플레이) 지난해 언급했던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진행상황은?**

A9) 일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 당사의 시그니처
특히 다이아몬드 픽셀 등을 침해한 제품이 유통 중인데
제조사 불명확. 미국 유통업체 10여곳을 관련 기관에 제소

= 끝 =